

6. 어떤 대상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전략’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추출한 의미로부터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상의 대상>	<추출한 의미>	<연상한 내용>
 열쇠	잠긴 곳을 열어준다.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①
 건전지	에너지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힘을 보태주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다. ②
 확성기	소리를 확대한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학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③
 부채	바람으로 더위를 식힌다.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다. ④
 블록	쌓아서 완성해 간다.	학생 개개인의 힘을 모아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⑤

7. ‘어린이 아토피 치료제’의 광고 문구를 제작하려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제품의 사용 방법과 효능이 잘 드러날 것
- 비유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드러낼 것

- ① 천연 오일을 사용했어요.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먹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 ② 밤이 되면 더 힘들었죠?
자기 전에 아픈 부위에 잘 발라 봐요.
비단결 같은 새살이 돌아와 줄 거예요.
- ③ 당당하게 웃음을 지어보아요.
더운 여름 아기의 찡그림은 싫어요!
보석처럼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켜줄게요.
- ④ 신개념 아토피 개선 치료제가 왔습니다.
매일 저녁 가려운 곳에 발라주십시오.
피부를 곱게 해줍니다.
- ⑤ 고통에 힘겨웠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깨끗이 씻고 아픈 곳에 발라 볼까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될 거예요.

8. <보기>는 ‘우리 학교 수학여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하여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수학여행 활동의 특징㉠

1. 수학여행 장소가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녀온 적이 있는 곳임.
2. 관람을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혼란스러움.㉡
3. 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많아서 복잡하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
4. 대부분의 활동이 별다른 즐거움 없이 따분함.

II. 문제점의 원인

1.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수학여행 장소가 결정됨.
2. 학년 전체가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감으로써 행사 참여 인원이 대규모임.
3. 대부분의 활동이 단순한 관광 위주의 활동으로 치우쳐 있음.

III.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함.
2. 학급별로 수학여행 장소를 다양화하여 행사 참여 인원이 소규모가 될 수 있도록 분산함.
3.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고 따분함.㉤

IV. 수학여행 문제점의 개선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활동의 문제점’으로 고쳐야겠어.
- ② ㉡과 ㉢은 유사한 상황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야겠어.
- ③ ㉣에는 ‘II-3’을 고려하여,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은 상위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학여행 장소의 선정’으로 수정해야겠어.

9. '도시철도의 제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신문 보도 자료

정부는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신규 도시철도 노선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

(나) 인터뷰 자료

1.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을 타는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자리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죠. 도시철도 노선이 새로 더 만들어진다면 보다 편한 출근길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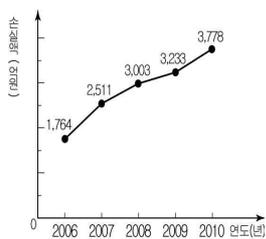
-30대 직장 여성-

2. 저희 △△도시철도는 역사(驛舍)를 어린이 체험학습장, 청소년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난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역을 테마파크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했던 외국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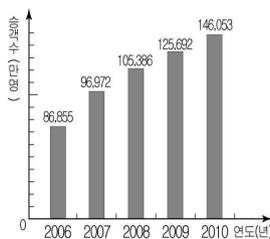
-△△도시철도공사 직원-

(다) 통계 자료

1. 연도별 ○○도시철도 손실액



2. 연도별 ○○도시철도 승객수



- ① (가)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 ② (나)-2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난 극복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것이 수익 창출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③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신규 노선 증설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 ④ (나)-1과 (다)-1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이용객의 불편 건수가 늘어남에 있음을 제시한다.
- ⑤ (가)와 (다)-1, (다)-2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증가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0. 다음은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 콘텐츠는 제작자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의 결정체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제작자의 창작 의지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제작자와 이용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의 발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다운로드로 당당하게 문화 콘텐츠를 즐기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를 비롯한 문학, 사진,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무리 정부 당국자가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여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네티즌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한다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① 글의 흐름을 살피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제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로 고쳐야겠어.
- ③ ㉡은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성하는'으로 바꾸어야겠어.
- ④ ㉢은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문맥을 감안하여 ㉣로 옮겨야겠어.

1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관형사형 어미>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 보기 2 >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준향전이다.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냐?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ㄹ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12. <보기>의 ‘걸다’를 피동으로 바꾼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걸다[동사] 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②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③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④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⑤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① ‘걸다①’: 그는 문단에 이름이 걸린 작가다.
- ② ‘걸다②’: 그는 걸려 있지 않은 문을 활짝 열었다.
- ③ ‘걸다③’: 나의 그림이 드디어 미술실 벽에 걸렸다.
- ④ ‘걸다④’: 그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 ⑤ ‘걸다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야(除夜)*

김영랑

제운*밤 촛불이 찌르르 녹아버린다
 못 견디게 무거운 어느 별이 떨어지는가

[A]

어둑한 골목골목에 수심은 떴다 갈앉았다
 제운맘 이 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

회부안 종이등불 수줍은 걸음걸이
 샘물 정히 떠붓는 안쓰러운 마음걸

한 해라 그리운 정을 뭉고* 쌓아 흰 그릇에
 그대는 이 밤이라 맑으라 비사이다.

* 제야(除夜) : 음력 설날 그믐날 밤
 * 제운 : ‘겨운’의 방언으로 ‘참거나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어(造語)이다.
 * 뭉고 : ‘모으고’의 고어(古語)이다.

(나) 신부(新婦)

서정주

신부는 ①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니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②땀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니다.

(다) 10월

오세영

무언가 잃어 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돌아보면 문득
 나 홀로 남아 있다.
 그리움에 목마르던 봄날 저녁
 불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욕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화상 입은 ㉠일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앓을 것이 없는 때,
 이 지상에는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낙과(落果)여,
 네 마지막의 투신을 슬퍼하지 말라.
 마지막의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이 어울린 또 한번의 만남인 것을, [B]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있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자아낸다.
 - ④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한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야」는 현실에 대한 상실감과 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기원 행위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그리고 이 시는 불의 고독, 광명, 구원 등의 상징성과 물의 맑음, 위안, 정화 등의 상징성을 사용해 제야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제1연에서 ‘촛불’이 ‘녹아버린다’는 여인의 고독을 하강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어둑한 골목’, ‘수심’ 등으로 보아, ‘제운맘’은 현실에서 비롯된 근심과 상실감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제3연에서 ‘안쓰러운 마음결’은 ‘등불’, ‘샘물’과 결합하여 구원과 정화를 소망하는 여인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제4연 첫 행에서 ‘흰 그릇’에 쌓인 ‘정’은 천지신명에 대한 감사와 새해를 맞는 기쁨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제4연 둘째 행에서 ‘맑으라 비사이다’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낸다.
 - ② [A]는 [B]와 달리 동일한 종류의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낸다.
 - ③ [B]는 [A]와 달리 대상의 감각을 전이시켜 입체감을 드러낸다.
 - ④ [A]와 [B] 모두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낸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신부」는 버림받은 신부의 한(恨)을 다룬 ‘일월산 황씨 부인당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부」는 달아난 신랑과 버림받은 신부,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서사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 ① 신랑이 달아난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신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군.
- ② 신부방 안과 밖의 대비를 통해 진실과 위선의 대립적인 구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 있던 기간은 버림받은 신부의 한이 심화된 시간이었겠군.
- ④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랑의 심경이 변화했겠군.
- ⑤ 신랑의 손길이 닿자 채로 내려앉은 신부의 모습에서, 신부의 한과 비극적인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군.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형적인 신부의 복장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 ② ㉡: 재회의 계기로, ‘잠시 궁금해서’와 연관 지어 볼 때 신랑의 무심한 태도가 드러난다.
 - ③ ㉢: 계절적 이미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의지를 다짐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 ④ ㉣: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열매를 맺기 위해 고통을 겪은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⑤ ㉤: 삶의 고뇌와 변민을 수용하는 성숙된 자세를 나타낸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판적 존재론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은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을 층이론(層理論)으로 설명하였다. 하르트만은 그의 저작 『미학』에서 예술 작품은 지각되는 실재적 재료인 ‘전경(前景)’과 비실재적이며 정신적 내포(內包)라고 할 수 있는 ‘후경(後景)’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술 작품의 전경은 감각적이며 실재적인 ‘형상’의 층이지만, 후경은 비실재적 ‘이념’의 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은 전경과 후경의 이층적(二層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경과는 달리 후경은 내용면에서 1층에서 4층으로 세분화되는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후경의 여러 층은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층 서열에 따라 앞 층에 의하여 다음 층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감각적인 전경을 통해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후경이 나타나는 것이다.

[A] 초상화를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전경은 화면이라는 2차원 공간에 칠해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과 색의 배치이다. 후경의 제1층은 묘사된 인물의 ‘외면적·물적’ 계층이고, 제2층은 앞의 물적 계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의 동작, 표정 등을 보여주는 ‘생명’ 계층이다. 제3층은 앞의 생명 계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의 성격, 내적 운명 등을 보여주는 ‘심적’ 계층이고, 마지막 제4층은 심적 계층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의 본질, 이념, 작품의 의의 등을 보여주는 ‘정신적’ 계층이다.

하르트만은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가와 감상자의 관계를 정립한다. 즉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정신 세계인 후경은 전경으로 형상화되고, 감상자는 전경을 통하여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한 후경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작품의 감각적, 현상적 층인 전경을 통하여 정신적 층인 후경에 깊숙하게 들어가 예술가와 만나고 그와 정신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하르트만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감상은 감상자가 주체적으로 예술가의 정신적 세계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추체험*을 넘어서 ③ 새로운 제2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감상이 단지 감각적인 쾌감만을 맛보고, 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논하는 데만 주안점을 둔다면 무슨 의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 감상은 감상자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신을 살찌우는 것이어야 한다.

* 추체험(追體驗) :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낌, 또는 이전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낌.

18.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의 감상 절차
 - 하르트만의 비판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 ② 예술 작품의 소재와 기법
 - 하르트만의 미학을 중심으로
- ③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과 감상
 - 하르트만의 층이론을 중심으로
- ④ 예술 작품의 의의와 효용 가치
 - 하르트만의 예술 세계를 바탕으로
- ⑤ 예술 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정신 세계
 - 하르트만의 예술사를 중심으로

19. [A]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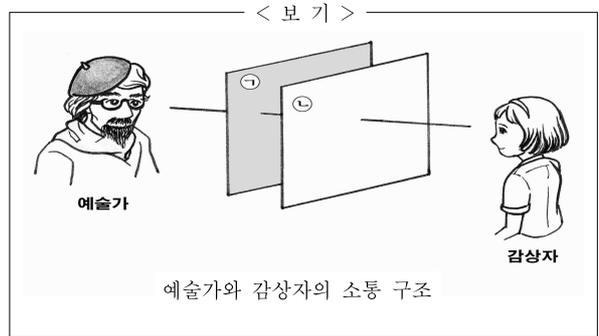
- 재용신, <황현 초상> -

황현(1855~1910)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로,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자 이에 항거하기 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초상화는 인물의 형형한 눈빛과 가는 수염,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선비 황현의 강한 의지와 기개 등이 그대로 전해지는 작품이다.

- ① 굵고 가는 선과 회고 검은 색이 보이는 것은 전경과 관련 있겠군.
- ② 인물의 얼굴이 점잖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후경의 제1층과 관련 있겠군.
- ③ 허리를 곧게 펴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인물의 모습은 후경의 제2층과 관련 있겠군.
- ④ 인물이 굳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은 후경의 제3층과 관련 있겠군.
- ⑤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추구하던 선비의 본성이 느껴지는 것은 후경의 제4층과 관련 있겠군.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가의 이념과 정신 세계는 ㉠에 있다.
- ②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층은 ㉠이다.
- ③ 예술 작품의 ㉠은 하나의 층으로, ㉠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예술가의 의도는 ㉠에서 비롯되어 ㉠을 통해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 ⑤ 감상자는 ㉠을 통해 ㉠에서 예술가와 교감할 수 있다.

21.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 ② 예술가의 뜻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것이다.
- ③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 ④ 감각적인 면보다 기법적인 면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다.
- ⑤ 기존의 예술 세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들은 번식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풀이나 나무라고 해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뿌리나 잎, 줄기 등에서 특정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이웃하는 다른 식물의 발생이나 성장·번식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를 **알레로파시**(allelopathy), 또는 타감 작용(他感作用)이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는 화학 물질을 타감 물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알레로파시를 보자. 소나무 뿌리는 갈로탄닌이라는 타감 물질을 분비한다. 그리하여 그 거목 아래에는 다른 식물은 물론이고 제 새끼인 예술도 거의 살지 못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관목의 일종인 살비아는 휘발성 터펜스를, 유칼립투스는 유카립톨을 줄기나 낙엽, 뿌리에서 뿜어내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디밭 한구석의 클로버가 잔디와 끈질기게 싸우면서 샤프터를 넓혀가는 것도 클로버가 분비한 타감 물질인 화약(火藥)의 역할 때문이다.

흔히 집에서 많이 키우는 허브나 제라늄 같은 식물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지만 쉰 바람이 불거나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별안간 짙은 향기가 난다. 이는 재빠르게 침입자를 쫓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람들은 그 향기가 좋다고 하지만 실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이다. 감자 싹눈에 들어 있는 솔라닌의 독성이나 마늘의 매운 냄새 성분인 알리신 역시 모두 제 몸을 보호하는 타감 물질이다.

병원균에 대한 식물의 방어 과정도 알레로파시 현상의 하나이다. 병원균이 식물의 세포벽에 납작 달라붙어 해로운 물질을 끼워 넣으면, 빠른 속도로 체관을 통해 비상 신호 물질을 온 세포에 흘려보낸다. 상처 부위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 물질을 이끌어 세포벽 단백질의 용해를 막으면서 세포벽에 딱딱한 리그닌 물질을 층층이 쌓게끔 하고, 파이토알렉신과 같은 항생 물질까지 생성해 낸다.

식물은 화학 물질로 말을 한다. 주지하다시피 송충이는 솔잎을, 배추벌레는 배춧잎을 갹아먹으며 산다. 그런데 송충이와 배추벌레가 달려들 때 솔잎과 배춧잎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그들은 서둘러 솔잎과 배춧잎의 상처 부위에서 테르펜이나 세키테르펜 같은 휘발성 화학 물질을 풍긴다. 그러면 말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쏘살같이 달려온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드는 천적을 어서 잡아와 달라고 말벌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것들이 신기하지 않은가? 정말 만만찮은 창조물들이다.

22. 알레로파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종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
- ②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 ③ 기존 세력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④ 침입한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 ⑤ 동식물 모두에게 나타나며 화학 물질을 활용해 자신을 지키 내기도 한다.

23. 위 글에 제시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ㄱ. 알레로파시의 실험 방법
 ㄴ. 알레로파시가 발생하는 과정
 ㄷ. 알레로파시가 일어나는 목적
 ㄹ. 알레로파시를 보이는 식물의 진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4.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본래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후추의 피페린은 타감 물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만들 때 고추나 후춧가루를 사용하여 매운맛을 내기도 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시켜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쓰기도 한다. 특히, 북쪽 지방보다 남쪽 지방의 음식의 경우 캡사이신이 많이 함유된 방아풀의 잎이나 산초나무 열매가루를 김치나 곁절이 등에 더 많이 넣는다.

- ① 타감 물질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군.
- ② 산초나무 열매나 방아풀의 잎에 타감 물질이 들어있었군.
- ③ 타감 물질인 캡사이신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겠군.
- ④ 더운 지방의 식물일수록 알레로파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군.
- ⑤ 고추나 후추가 지니고 있는 매운 성질은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도 있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 역사는 보고 싶지가 않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군자들은 반드시 곤역을 당하고
 소인들은 득세한 자들이 많으니.
 성공할 즈음이면 문득 패망 싹트고
 안정될 듯하면 이미 위태함 따르네.
 삼대시대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하루도 제대로 다스려진 적 없었도.
 [백정]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저 푸른 하늘의 뜻 알 수가 없네.
 지난 일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하물며 ㉠오늘날의 일이겠는가.

古史不欲觀
 觀之每迸淚
 君子必困厄
 小人多得志
 垂成敗忽萌
 欲安危已至
 從來三代下
 不見一日治
 生民亦何罪
 冥漠蒼天意
 既往尙如此
 而況當時事

- 김육, 「관사유감(觀史有感)」 -

(나)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上)마름을 능욕(凌辱)하고
 오고 가는 어린 손을 큰 양반을 기롱(譏弄)한다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피로 제 일하니
 한 집의 많은 일을 누라서 힘써 할까
 곡식창고 비었거든 고직(庫直)인들 어이 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옹기인들 어이 할까
 내 원 줄 내 몰라도 남 원 줄 모를런가
 ㉢풀치거니 땀허거니 헐뜯거니 뉘거니
 하루 열두 때 어수선 핀 것인가
 밤별감 많이 있어야 외방마름 도달화도
 ㉣제 소일 다 버리고 몸 꺼릴 뿐이로다
 비 새어 썩은 집을 누라서 고쳐 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라서 고쳐 쌓을까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 찬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할까
 크나큰 기운 집에 [상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뉘 들으며 논의를 누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말아 계시거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험 없는 종의 일은 문도 아니 하려니와
 도리어 생각하니 상진님 탓이로다
 내 상진 그르다 하기 종의 죄 많건마는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로 일겁니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다)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
 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본

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께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
 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없을 듯하
 다. 군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탐치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
 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
 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출
 출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순도순 이
 야기할 수 있고—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주장스런 과
 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써든 탄생시켜준 자
 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
 들어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
 의 마음이 점점 육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빠져리는 듯하다.
 마는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왠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
 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
 디냐, 북이 어디냐. 아라!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
 에 떨어져야 한다.

- 윤동주, 「별똥 떨어진 데」 -

2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
 키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드
 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작품의 흐름
 을 주도하고 있다.
 - ④ (가)~(다)는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의 분
 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6. ㉠~㉤ 중, ㉢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가)의 [백정]과 (나)의 [상진]에 대한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처지에 안타까워하며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 ②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 ③ 대상을 관조하며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예찬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의 심정에 공감하며 격려하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운동주 작품 세계의 근간은 자아에 대한 성찰에서 오는 부끄러움의 정서이다. 그의 고뇌는 외부의 부정적 현실을 인식한 뒤에 느끼게 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괴리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실과 이상 속에서 늘 이상을 지향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이 밤’은 외부의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겠군.
- ② ‘과제’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겠군.
- ③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올아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겠군.
- ④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나 있겠군.
- ⑤ ‘꼭 떨어져야 할 곳’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을 나타내겠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이다. 기업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기업 운영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 즉 주주들은 기업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이 주식은 금융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 살펴보는 기본적인 자료에는 주식거래표와 주식 차트가 있다. 주식거래표에는 현재가, 시가, 증가, 고가, 저가, 전일비, 액면가 등이 표시되어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 현황 및 가치와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현재가’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말하고, ‘시가’는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각의 가격, ‘증가’는 시장 마감 시각의 가격이며 주식 시장이 마감한 후에는 ‘현재가’를 ‘증가’로 본다. ‘고가’는 하루 중 해당 주식의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저가’는 가장 낮았을 때의 가격을 말한다. ‘전일비’는 어제의 증가에 비해 오늘의 현재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금액으로 보여주고 ‘등락률’은 그것을 비율로 보여준다. ‘액면가’는 주식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의 주식 증권에 표시되어 있던 가격을 말한다.

또한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PER 등도 표시되어 있는데 상장주식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해당 기업의 총 주식 수를 의미하며 이 상장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한 금액이 ‘시가총액’이 된다.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해당 주식의 가격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PER가 낮다면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PER가 높다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주식 차트는 일정기간 주식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차트에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주식 차트는 하루나 5일, 60일 등 다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만

들어진다. 주식 차트의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 가격을 평균화해서 만든 선으로, 주식 가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주식 차트에 표시되는 ‘거래량’은 주식이 거래된 양을 보여준다. 주식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의 변화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한다.

주식거래표나 주식 차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상승하리라 믿었던 주식의 가격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는 신중해야 한다.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거래량으로 해당 주식의 가격 동향을 예측할 수 없다.
- ②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가 크면, 등락률도 크다.
- ③ 상장주식수를 통하여 당일 주식의 총 거래량을 알 수 있다.
- ④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에 변화된 시가와 증가의 합이다.
- ⑤ 저가에서는 주식이 적게 거래되고, 고가에서는 주식이 많이 거래된다.

30. 다음은 ○○전자의 주식거래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표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자	2011년 7월 13일(수) 시장 마감 이후		
현재가(원)	50,000	시가(원)	49,000
전일비(원)	▲1,000	고가(원)	55,000
등락률(%)	2.04	저가(원)	48,000
거래량(주)	50	액면가(원)	5,000
상장주식수(주)	100	PER(배)	2.5

(단, ▲는 상승을 의미함.)

- ① ‘○○전자’의 전일 증가는 49,000원이군.
- ② ‘○○전자’의 시장 마감 이후 주식의 가격은 50,000원이군.
- ③ ‘○○전자’가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의 주식 가격은 5,000원이었군.
- ④ ‘○○전자’의 일주일 전 시장 마감 직후의 PER가 2라면, 지금의 주식은 그때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군.
- ⑤ ‘○○전자’의 액면가 5천원에 상장주식수 100주를 곱한 가격인 50만원이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군.

31.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였다.
- ② 의사의 조언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해 수영을 시작하였다.
- ③ 다소 비싸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
- ④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 ⑤ 화려한 디자인의 옷보다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물하였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애(philia)’란 선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우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생물이어서는 안 되고, 또한 상대가 자신의 선의에 응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무생물은 생명이 없기에 선의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주기만 하는 사랑은 주는 사람의 일방적 선의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애의 형태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득을 위한 우애, 둘째는 쾌락을 위한 우애, 셋째는 선의에 의한 즉,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탕을 둔 우애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득이나 쾌락을 위한 우애는 완전한 우애가 될 수 없다. 이득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얻으려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위한 우애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유쾌해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상대방의 성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얻을 것이 있거나 유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애는 상대방이 전과 달라지면 쉽게 없어지므로 완전한 우애로는 볼 수가 없다.

완전한 우애란 선한 사람들 사이의 우애이다.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우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가 선의를 유지해야만 한다.

동등한 관계에서의 우애와 달리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완전한 우애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의 우애, 우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우애가 그것이다. 이럴 경우 우애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거나 배려함으로써 그 우애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족적인 사람에게도 우애가 필요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만 느끼는 행복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32.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애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완전한 우애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해
- ② 우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완전한 우애와 그렇지 않은 우애의 차이에서 찾기 위해
- ③ 완전한 우애의 필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을 특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기 위해
- ④ 완전한 우애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해보고 각 조건의 타당성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 ⑤ 동등한 관계의 우애와 그렇지 않은 관계의 우애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완전한 우애의 지속성에 대하여 탐구하기 위해

33.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쾌락이 이득보다 우선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득이 쾌락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봐.
- ② 우애는 선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애는 선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고 봐.
- ③ 주기만 하는 사랑은 선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찌하였든 사랑은 선한 마음이므로 선의라고 볼 수 있어.
- ④ 집단 간의 우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집단 간의 우애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봐.
- ⑤ 유머 있는 사람을 단순히 유쾌해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여유롭고 긍정적인 성품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

3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진국 A는 빈곤국 B의 높은 질병 발생률을 우려해서 B를 위한 마음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B의 질병 발생률은 크게 줄었으며, A는 국제 사회로부터 그 선의를 인정받았다. 게다가 약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그 판매율이 크게 늘어나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기도 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C국은 수익 창출을 위해 B국에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① A국이 B국에게 약을 공급한 이유는 B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 때문이다.
- ② B국 역시 A국에게 선의를 보여주어야 완전한 우애라고 할 수 있다.
- ③ A국은 B국의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므로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A국과 B국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으므로 A국의 선의가 B국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B국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 ⑤ C국은 A국과 달리 이익을 위해 B국을 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한 뒤에는 B국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35. <보기>는 ‘-되다’에 대한 설명이다. ㉠과 유사한 것은?

< 보 기 >

‘-되다’는 일부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는 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 ① 영광되다 ② 발견되다 ③ 사용되다
- ④ 형성되다 ⑤ 처리되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쟁이 나던 해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자 '나'는 가족과 떨어져 고향 진영에서 어렵사리 지낸다. 대구로 간 가족들은 장관 등의 '마당깊은 집'에 사글세살이를 시작하고 '나'는 3년 만에 가족들과 합치게 된다. '마당깊은 집'의 위체에는 주인집이 살고, 아래채에는 네 가구의 피난민들이 세를 들어 살고 있다. 어느 날 위체의 주인은 아들을 미국에 유학보내기 위해 관리들과 미군을 초대하여 파티를 연다.

나는 경기택네 ㉠쪽마루에 경기택과 나란히 앉아 추위로 오들오들 떨며, 상들리에 전등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힌 ㉡위채 대청 유리문 안쪽의 온성한 파티를 먼발치에서 지켜다보며 구경했다. 담요를 둘러쓴 경기택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잘 차려입은 여러 사람 사이에 섞인 ㉢자기 딸을, 마치 이리떼 놀이터에 풀어놓은 양을 지키듯 감시하고 있었다. 대청에는 대형 툽탑난로가 별칭게 달아 있었고, 전촉에서는 미국 대중 가요가 흘러나왔다. 대청 한쪽에는 흰 보를 씌운 다리 긴 식탁이 있었고, 그 식탁 위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과 술병이 즐비했다. 손님들은 쟁반을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쟁반에 담았다. 자기 몫 음식이 따로 있지 않고 동등산갈게 쟈 음식을 저런 방법으로 양껏 먹을 수 있다니,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연미복에 나비넥타이를 맨 군방각에서 온 젊은이가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음식두 지랄같이 쳐먹네. 서서 깔깔거리며 먹는 저 서양식 깃거리가 대체 무슨 꼴이람. 음식 맛두 제대로 모르겠군.” 경기택의 빈정거림이었다.

“서양식 식사는 역시 통이 큼더. 음식 접시 앞을 돌아맹기미지 묵고 싶은 거마 골라 배 터지게 묵을 수 있으니까에.”

㉣“신문 배달하는 너는 어느 세월에 저렇게 차려놓구 서서 다니며 먹어보겠니. 길남이 너, 자신 있어?”

분명 비꼬는 말인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추위 탓만도 아닌, 나는 평생 저런 방법으로 음식을 먹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몸을 떨었다.

< 중략 >

“아뿌지, 모른다. 나 모른다…….”

누워 있던 길수가 기침 끝에 헛소리같이 중얼거렸다. 길수는 열이 높아 이틀 동안 헛소리를 내질렀고, 목이 부었는지 죽이 외는 아무것도 입 안에 넘기지 못했다. 사팔뜨기 짝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쉰 목소리로 헛소리를 내지를 때는 애처로워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약 한 알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는 열이 내렸으나 기침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사이 길수는 얼굴이 더욱 험췌해져 머리통만 큰 기형아로 보였다.

“우리 길수가 어서 일어나야 할 깐데. 어이구, 저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는 길수가 덮은 이불깃을 다독거리주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대구에 터를 잡았던 이듬해 이야기다. 어머니는 자주 그 이야기를 꺼내었고 당시 나는 진영에 있었기에 그 정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세 자식에게 하루 두 끼니는 근근이 입에 풀칠을 시키다, ㉥어느 날 하루를 꼬박 굶긴 적이 있었다 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이모님댁에서 보리밥 한 그릇을 얻어와 그 밥을 불려 먹는다고 죽을 쑤어, 당신은 먹지 않고 세 자식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빈 배속에 뜨거운 죽을 너무 급하게 먹었던지 길중이가 먹은 죽을 죄 토해내고 말았다. 길중이는 방바닥에 위액과 더불어 토

해놓은 죽을 끓여 다시 먹었음은 물론인데, 걸레로 방바닥을 훑치는 어머니를 길수가 눈여겨보았던지, 길수가 나중에 그 걸레를 빨아먹고 있더라 했다. “세 살밖에 안 된 것이 그때만은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그 걸레에 죽이 묻었다꼬 빨아먹고 안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다. 그러나 그뒤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어머니 말을 나름대로 고쳐 해석하게 되었다. 길수는 걸레에 묻은 죽 찌꺼기를 빨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배가 고프면 시골 아이들이 부드러운 흙을 집어먹듯, 빈 배속을 채우려 무심히 걸레를 빨아먹었으리라. 그러나 내 해석이야 어쨌든, 길수의 그런 일화를 회상할 때마다 그가 지금 이 지상에 살아 있지 않음으로써, 그를 향한 연민의 정이 내 마음을 늘 아프게 울린다.

밤마다 따뜻한 짐승 새끼이듯 내게 화로 구실을 해주던 길수는 그 길긴 독감으로부터 살아났으나, 그로부터 겨우 삼년을 더 채우고, 우리 집안에 가난의 그림자가 견히기 전 ‘더러운 세월’과 함께 죽었다. 그 아둔한 걸음과 어눌한 발음 탓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거절당한 채 병원 신세 한번 지지 못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뇌막염으로 숨을 단았으니, 그의 나이 만 여덟 살 때였다.

- 김원일, 「마당깊은 집」 -

3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풀어가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갈등 상황을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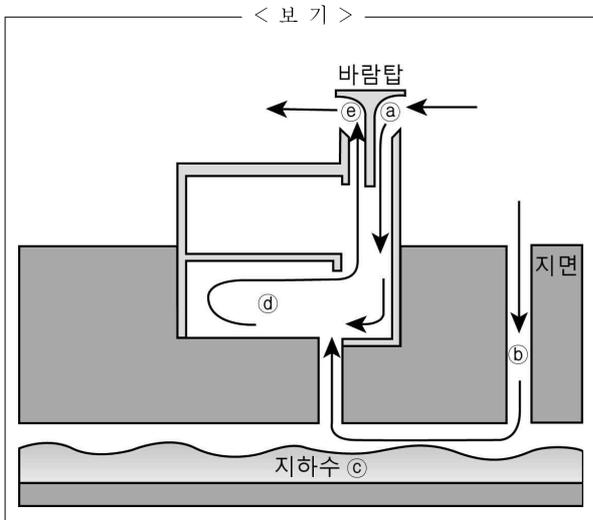
37.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1.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학 성분 대신 야자유 지방산을 넣은 친환경 세제를 개발하였다.
- ② 열에 약해 수명이 짧았던 기존 조명등의 문제를 내열 처리 기술을 사용해 해결하였다.
- ③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다양한 식물로 이루어진 벽에 통과시켜 맑은 공기로 정화하였다.
- ④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석유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 ⑤ 불필요한 난방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홈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2. <보기>는 ㉠와 관련된 시설의 단면도이다. 위 글을 참고하였을 때,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입구 ㉠을 내어 바람이 잘 들어오게 했겠군.
- ② 지면의 공기가 온도차에 의해 ㉡로 유입되었겠군.
- ③ ㉢는 유입된 공기의 열을 빼앗는 역할을 하겠군.
- ④ ㉣는 공기의 빠른 흐름에 의해 압력이 낮겠군.
- ⑤ 대류현상에 의해 상승한 공기가 ㉤로 배출되었겠군.

43.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뚜껑을 열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다.
- ②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 ③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 ④ 그는 친구들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
- ⑤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을 하였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개성 부호가의 아들 홍생(洪生)은 팔월 한가위를 맞아 평양에 왔다가 친구 이생(李生)이 벌인 잔치에 와서 술이 취한 뒤, 잠이 오지 않아 부벽정(浮碧亭)에 올라 시를 읊었다.

오늘이 한가위라 저 달빛은 곱구나.
외로운 ㉠ 정터를 바라볼수록 슬프도다.
기자묘(箕子廟) 뜰 앞에는 늙은 숲이 우거지고
단군사(檀君祠) 벽 위에도 담쟁이가 얽히었네.
영웅은 자취 없어 어디로 돌아갔노.
초목만 의희(依稀)*한데 몇 해나 되었더냐.
옛날이 더욱 그림구나 둥근 달만 의구하도다.
맑은 빛이 흘러흘러 객의 옷에 비치네.

어느덧 밤이 깊어 돌아오려 할 때에 서쪽에서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홍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절에 있는 중이 찾아오는 것이겠지?’

그러고는 앉아서 기다리니 뜻밖에도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을 두 아이가 좌우에서 모시고 따르는데, 한 아이는 옥 파리채*를 들었고 다른 아이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다. 여인의 위의(威儀)는 정제하고 그 몸가짐이 귀족집 처녀 같았다.

그녀가 말했다.

“아까 그대가 읊는 시는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나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홍생은 그 시를 빠짐없이 다시 들려주었다. 여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와는 시를 논할 만하구려.”

<중략>

홍생이 그 음식을 먹는 동안 그 여인은 홍생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계전*(桂箋)에 써서 시녀를 시켜 홍생에게 건넸다.

홍생은 그 시를 읽고 매우 기뻐, 그녀가 빨리 돌아갈까봐 좋은 이야기로 만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성씨와 보계*(譜系)를 듣고자 하옵니다.”

“예, 이 몸은 옛날 은왕(殷王)의 후예요 기씨(箕氏)의 딸입니다. 나의 선조 기자(箕子)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법과 정치를 한결같이 탕(湯)왕의 유훈을 따라 팔조(八條)의 금법(禁法)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문화가 빛났는데 갑자기 국가와 민족이 비운에 빠져, 나의 선고(先考) 준왕(準王)께서는 필부의 손에 패하여 드디어 국가를 잃으시고, 위만(衛滿)이 틈을 타서 보위(寶位)를 도적하니 나 같은 약질은 이때를 당하여 스스로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룩한 선인이 나타나셔서 나를 어른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본디 이 나라의 시조(始祖)로서 부귀를 누린 뒤에 바닷섬에 들어가 선인이 된 지 벌써 수천 년이 되었느니라. 그대는 나와 함께 상계(上界)에 올라가 즐겁게 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기에 곧 응낙하였더니, 그분은 나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별당을 지어 나를 접대하고, 또 나에게 삼신산의 불사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니 갑자기 몸이 가벼

위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공중에 높이 떠서 우주를 굽어보며 세계의 명승지를 빠짐없이 유람하였는데, 어느 날 가을 하늘이 맑고 유난히 밝은지라 별안간 멀리 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달나라에 올라 광한청허지전(廣寒淸虛之殿)을 구경한 후 수정궁(水晶宮) 안으로 가 향아(姮娥)를 방문하였더니, 향아는 내 절개가 곧고 글월에 능통하므로 꺾어 이르기를 ‘인간 세상에도 명승지가 없지 않으나 모두 풍진이 소란하니, 어찌 청천에 한 번 솟아 흰 난조를 타고 맑은 향내를 계수에 뿜으며 옥경(玉京)에 설령이고 은하에 목욕하는 것과 같겠느냐?’ 하고는 즉시 나를 향안(香案)의 시녀로 하여금 양쪽에서 모시게 하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고국 생각이 간절하여 하계의 인생을 내려다보니, 산천은 의구하나 인물은 간데없고 명월은 내를 덮고 백로는 티끌을 씻은지라, 옥경을 하직하고 슬며시 내려와 조상님 무덤을 배알한 후 부벽정에 올라 시름을 달래려 하였는데 마침 당신을 만나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노둔(駕鈍)한 붓을 들어 아름다운 시에 화답했으나, 시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대충 말한 것입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여인이 신선 세계로 돌아간 후, 꿈속에 시녀가 나타나 여인이 홍생의 문재(文才)를 아껴 선계의 벼슬을 명령하였음을 알린다. 홍생은 잠에서 깨어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향을 태우며 잠만 누웠다가 세상을 떠난다. 시간이 지나도 시인의 얼굴빛이 변하지 않자 사람들은 홍생이 신선이 되었다고 추측했다.

- 의희(依希): 거의 비슷하다.
- 옥 파리채: 선종(禪宗)의 종이 번뇌와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표지
- 계전(桂筵): 계수나무 잎
- 보계(鑿系): 혈통 관계

- 김시습,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입체적 구성으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의 이동으로 갈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진술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는 ‘여인’이 홍생의 시에 화답한 시의 일부분이다.

㉠~㉣ 중, **옛 정려**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옛성을 바라보니 ㉠대동강이 여기로구나.
 푸른 물결 맑은 모래 울어 예는 저 ㉡기러기
 ㉢기린은 오지 않고 고운 님을 여인 뒤에
 ㉣통소 소리 끊어지고 ㉤높은 무덤뿐이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6. 위 글을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견해 1] 작가와 홍생을 동일시하는 경우
 ▷ 홍생의 처지와 심리를 작가 의식으로 본다. 작품 속에서 홍생은 선계와 교류하고, 결국 선계로 들어간다.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었던 작가는 이러한 홍생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뇌와 회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다.

[견해 2] 작가와 여인을 동일시하는 경우
 ▷ 여인의 말에 나타난 역사 의식을 작가 의식으로 본다.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역사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드러냈고, 나라가 패망했을 때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한 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 ① [견해 1]로 볼 때, 홍생의 시에 드러난 무상감은 작가의 현실에 대한 회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견해 1]로 볼 때, 홍생이 뛰어난 문재(文才)로 선계의 벼슬을 받은 것은 작가 자신의 소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견해 2]로 볼 때,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기다렸다는 여인의 말에서 세조 정권에 항거하는 작가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 ④ [견해 2]로 볼 때, 여인의 답변 중에서 기자의 예법 정치를 강조한 부분은 작가의 문화적 자긍심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견해 2]로 볼 때, 여인이 선계(仙界)에 있다가 부벽정을 찾은 것은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작가의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 ① 천우신조(天佑神助)
- ② 금과옥조(金科玉條)
- ③ 학수고대(鶴首苦待)
- ④ 흥진비래(興盡悲來)
- ⑤ 간담상조(肝膽相照)

